

# ■ 박상천 대표 '민주·신당 설前 통합' 제안

## 가능성 높지만 호남 공천권이 문제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설 이전 당 대 통합을 민주당에 제안함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의 단일대오 형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이전 범여권의 단일대오 형성 여부와 관련, 회의적 전망과 낙관적 기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호남권 총선 주자들은 양당의 협상 진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박상천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일당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도개혁 정당을 출범시켜 4월 총선을 통해 양대 정당으로 도약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이 민주당과 통합, 강력한 중도개혁 통합정당을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

### 양측 모두 절박함 인정...범여권 단일대오 형성 관심

### 일각선 "외부인사 영입 어려워 공천혁명 역행" 반대

고 밝혔다.

박 대표는 통합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통합신당의 당권을 쥐고 있는 라인에서 이야기가 있었으며 통합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난 1991년 신민당과 민주당과의 통합 때 당시의 67명 대 8명이었으나 최고위와 공천심사 특위는 동수로 구성하여 합의 공천했으며 결과는 8대 2였다"고 밝혀 적절한 한 지도부 구성과 공천만 배려된다면 통합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신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통합에 대한 공감을 이뤘다는 점에서 총선 전 단일대오 형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여기에 박 대표가 사실상 8:2의 합의 공천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호남에서 4~5석을 민주당 몫으로 공천한다면 통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제안에 대통합민주신당은 원론적으로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분이나 조건을 내세운 통합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민

주당과의 지분 및 공천 협상에 나섰다가 실패한다면 결국 또 다른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 공천을 둘러싸고 신당 및 민주당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는 점은 양당의 통합에 대한 회의감을 높이고 있다. 당장 민주당과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아무리 지분 및 공천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최소한 4~5개의 지역구 의석을 민주당 측에 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외부인사 영입이 어려워지면서 실질적인 공천 혁명이 불 건너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얼굴 알려라” 정치신인들 묘안 백출

### 4·9 총선 현장

#### 김승남·이윤정씨 총선 행보 본격화

○김승남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22일 광주 광산구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시민의 친구! 광주의 아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표심 잡기에 돌입.

그는 이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역 국회의원들과 참여정부의 장·차관직 인사들은 지난 4년간 광주시민들에게 아무런 비전이나 희망을 주지 못한 채 무력하게 정권을 넘겨준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통합의 정치를 실현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며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

앞서 이윤정 한전KDN㈜ 상임이사도 지난 21일 광주 남구 출마를 위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총선 행보를 본격화.

#### 임현오·김재곤·민형배씨 눈길끌기 분주

○18대 총선 출마 예정인 정치 신인들이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차가워지지 않고 있어 특정 이슈에 대한 설명서를 '붓물'처럼 쏟아 내거나 지역구 주요 행사에 꼬박 꼬박 얼굴을 내미는 방법 등으로 눈길 끌기에 안간힘.

광주 북갑 지역 출마를 선언한 임현오 광주교육대 총장을 비롯, 북을 지역에 출마표를 던진 김재곤 전 북구청장, 민형배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등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 폐지와 관련, 잇따라 설명서를 내는 방법으로, 민형배 후보 등은 선거구인 광산구에 건립된 '신가 119안전센터 개소식' 등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얼굴 알리기에 주력.

#### 오형근씨 주민과 대면접촉 지지 호소

○오형근 성형외과 원장이 총선 출마 선언 뒤 지역구를 돌며 얼굴 알리기 행보를 강화.

북갑 지역 출마 예정자들 중 가장 일찍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오 원장은 두암동·묘흥동 등 경로당을 돌며 주민들과의 대면접촉을 통한 '인지도 높이기'에 힘을 쏟는 한편 "각 분야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시대"라며 지지를 호소.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기득권·지분 내세우지 않고 통합 임할 것”

### ■ 광주 찾은 손학규 대표 회견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22일 민주당에서 제안한 '설 이전 통합'과 관련 "지분과 조건에 좌우되어서는 실패하기 쉽다"며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는 진정한 통합정신을 갖고, 진지한 노력으로 통합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지도부와 함께 국립5·18묘역을 참배한 뒤 신당 광주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통합 과정에서 과거 대신 때처럼 분쟁이 일어나다면, 이는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은 '당 대 당'으로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실패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며,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원한다면 (통합논의를 위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8대 총선 인물 교체론과 관련하여서는 "확실적으로 어떤 인사들을 일정한 틀에 가둬놓고 일도양단, 마녀사냥식으로 배제하는 건 선선 민주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정권역이나 그룹을 획일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공천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지도부와 함께 국립 5·18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위정라기자 jrwi@kwangju.co.kr

### “중립적 공천심사위 구성... 획일적 물갈이 안한다”

그는 또 "현역 물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갖고 책임자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 "우리 정치가 좀 더 폭력이 높은 언어로 우리 자신을 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공천과 관련,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신당이 신뢰받는 대안세력으로 발전해나가는 데 제대로 기여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객관적이

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독립적 공천심사위를 구성하기 위해 사회적 신망과 위를 구성하기 위해 사회적 신망과 위를 존경을 받는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옛 민주당 '8인 모임' 소속인 정관현 최고위원과 박광태 광주시장이 호남지역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설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호남에서 채신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두 사람이 전권을 행사한다는 건, 그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당내 전·현직 지도부의 수도권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당의 지도적 인사들이 전부 수도권에 나가야 한다, 아니다 하는 건 출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뜻과 취지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그에 대한 당과 지도부의 대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여론을 납켰다. /홍행기자 redplane@

## 박지원 ‘목포 大戰’ 현실화 한화감

### 朴 “민주신당 입당, 목포 출마하겠다” 韓 前대표도 “당당히 나의 길 가겠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박지원 비서실장이 22일 대통합민주신당 입당과 함께 전남 목포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박 비서실장의 대통합민주신당 입당과 목포 출마는 손 대표 체제에 DJ의 의지가 실리는 것은 물론 신당과 민주당의 통합 논의를 넘어 범여권의 재편에 영향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 실장은 이날 오전 "조만간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하는 절차를 밟은 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며 "출마 지역구는 목포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신당의 체제가 정비되고 영입위원회도 조만간 만들어진다고 하니 신당에 입당하

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특별복권 조치로 '정치적 족쇄'가 풀려난 박 실장은 이번 총선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실장의 목포 출마는 개인적인 명예회복 여부를 떠나 DJ의 정치적 영향력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박 실장의 입당은 DJ가 사실상 손학규 대표 체제의 민주신당을 정통 민주세력을 잇는 적자 정당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박 실장의 행보에 따라 민주당과 민주신당의 통합 문제 등에 상당한 영향도 예상된다. 정치권에

서는 벌써 양당의 통합과 관련, 박 실장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DJ의 복심이 민주신당에 머무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호남지역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박지원 실장의 목포 출마 선언에 맞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목포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목포대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내가 박지원 실장의 출마를 말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누군가 눈치를 보면서 출마를 결정하기 보다는 정당하게 나의 길을 가겠다"고 목포 출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목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상열 의원은 "박 실장이 신당에 입당한다면 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며 "시민의 지지가 높은 사람이 공천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